

부모코칭역량이 부모자녀의 의사소통과 부모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우동욱** · 김응자***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코칭역량이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부모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충남, 경남,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부모 328명 이었다. 자료분석은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 부모코칭역량,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유능감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부모코칭역량이 부모-자녀 부정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코칭역량 요인은 부모-자녀 부정적 의사소통을 14.7% 정도 설명하였고 회귀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성장촉진역량, 자기성장역량, 의사표현역량, 의사존중역량이 부모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코칭역량은 태어나 처음 타인과 소통하는 유아기의 자녀에게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그때의 경험이 이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코칭프로그램을 통한 코칭역량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제어 : 부모코칭역량, 의사소통, 부모유능감

논문 투고일 : 2020. 1. 28. 최종심사일 : 2020. 2. 21. 게재확정일 : 2020. 3. 13.

* 이 논문은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코칭학과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샘 센터 소장

***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코칭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Kim, Eung Ja, Graduate School Dept, of Coaching, Namseoul University,
Daehak-Ro Seonghwan-eup, Choongnam, Korea, E-mail: eungja@nsu.ac.kr

I. 서론

현대의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고 시대에 맞는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증가 되고 있다. 기존의 부모 역할은 양육, 보호, 훈육에 있었다면 지금의 부모 역할은 자녀 스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격려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가도록 돕는 코치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김응자, 2013). 이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부모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변화되는 사회에 맞추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다양한 부모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도미향·김근주·이경주, 2019).

이를 위해 새로 등장한 부모교육방법 중 하나가 코칭(Coaching)이다. 더 세부적으로 나아가 코칭기법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성장을 위해 시도하는 것을 부모코칭이라고 한다(신원애, 2012). 부모코칭(parent coaching)은 자녀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자녀 내부에 해답이 있으며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부모코칭의 철학에서 시작되어(도미향, 2008), 자녀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자녀가 행복할 수 있도록 부모가 지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김응자, 2004).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잠재력을 이끌어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역량이라 한다.

부모코칭역량은 부모의 코칭기술, 코칭지식의 인지적 차원과 부모 자신의 자기 수용, 자기 인식, 자녀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기대되는 부모의 긍정적인 역할이며, 자녀 스스로 생각하고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지원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정현희, 2019, 도미향 외, 2019).

의사소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속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이다. 발달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영유아기이며 이 영유아기 시기에는 말이 시작되고 특히 유아기에 있어서는 언어가 급성장되고 부모를 모방하며 사회적 역할 학습이 시작되고 문화적인 가치관도 습득되는 시기이므로 부모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시기이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자녀들의 원만한 삶과 지능, 생활 태도를 결정짓는 데 영향을 주며, 자녀의 사회화 과정이나 성격형성에 근본이 된다(양성숙, 2015). 또한, 부모가 자신 스스로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인지를 할수록 부모의 유능감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부모유능감이란 부모 역할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자녀 양육을 잘 해 나갈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능력을 지각하며 내리는 긍정적인 자기 평가이다(Johnston & Mash, 1989). 특히, 부모 자신이 부모 역할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자녀 양육을 잘 해 나갈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능력을 지각하며 내리는 긍정적인 자기 평가인 유능감은 의사소통 태도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경(2008)은 어머니가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유능하다고 느낄수록 유아가 자신의 인지적인 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높다고 밝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 역할에 있어 어떤 역할을 발휘하는지에 따라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부모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부모코칭역량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유아를 대상으로한 부모코칭 역량에 대한 연구는 유아자기 주도학습력(정현희, 2019), 독서능력, 유아다중지능과 결정지능(신원애, 2012), 유아의 자율성(민혜영, 2019) 등 부모코칭역량에 따른 유아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연구는(정은선, 2017) 대부분이 아동과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부모 역할에 대해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 자신의 역할에 자신감을 갖는 부모유능감에 대한 연구는 부모유능감(양성숙, 2015; 김지현·한준아·조윤주, 2015), 양육스트레스(이영주, 2016) 등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며, 부모코칭역량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유능감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부모코칭역량을 발휘하는 주체는 부모 자신이므로 부모가 자신의 코칭역량에 따라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유능감을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코칭역량에 따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부모들의 유능감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4~7세의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코칭역량이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부모유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혀 향후 부모교육이나 코칭 교육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코칭역량이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부모코칭역량이 부모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모코칭역량이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부모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충남, 경남,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4~7세 자녀를 둔 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회수된 400부 중에서 응답이 누락되거나 무성의하게 답한 것을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328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배경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아버지가 85명(25.9%), 어머니가 243명(74.1%)이었으며, 자녀의 연령은 4세가 59명(18.0%), 5세가 69명(21.0%), 6세가 76명(23.2%), 7세가 124명(37.8%)이었다.

부모의 연령대는 30대가 215명(65.5%), 40대가 100명(30.5%), 20대가 12명(3.7%), 50대 1명(0.3%)이었으며, 학력은 대졸이 238명(72.6%), 고졸 53명(16.2%), 대학원 졸 33명(10.1%), 중졸과 기타가 각각 2명(0.6%) 순이었다.

부모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97명(29.6%), 사무직 57명(17.4%), 전문직 51명(15.5%), 생산 기술직 32명(9.8%), 자영업 23명(7.0%), 공무원 20명(6.1%), 서비스직 19명(5.8%), 기타 29명(8.8%)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도구

1) 부모코칭역량

연구에서 부모코칭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도미향과 김근주, 이정주(2019)가 개발한 부모코칭역량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코칭역량설문지는 6개 영역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화한다. 부모코칭역량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사회적역량(8문항) .872, 의사표현역량(5문항) .845, 의사존중역량(6문항) .832, 자기성장역량(4문항) .794, 성장촉진역량(6문항) .861, 관계형성역량

(3문항) .748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신뢰도는 .955로 나타났다.

2)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의사소통 측정 도구는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한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PAC)을 김윤희(1990)가 변안한 측정 도구에서 이명란(2013)이 개방적인 의사소통유형을 수정, 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긍정적 의사소통 15문항, 부정적 의사소통 5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지의 각 문항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는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의사소통 5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부모자녀 긍정적 의사소통 .901, 부모자녀 부정적 의사소통 .785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757이다.

3) 부모유능감

본 척도는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부모유능감 척도인 P.S.O.C(Parenting Sense of Competence)를 신숙재(1997)가 수정·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의 총 16문항은 유능감과 만족도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서의 유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9문항만을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부정문으로 된 2문항은 역으로 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서 유능감이 높다고 지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852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통계처리를 SPSS 21.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부모코칭역량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유능감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부모코칭역량이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부모코칭역량(사회적 역량, 의사표현역량, 의사존중역량, 성장촉진역량, 관계형성역량)과 부모자녀 의사소통(긍정적, 부정적)의 관계는 <표 1>과 같다.

첫째, 부모코칭역량이 부모자녀간 긍정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코칭역량의 하위변인인 중에서 사회적역량($t=2.032, p<.05$), 의사존중역량($t=4.934, p<.001$), 자기성장역량($t=3.048, p<.01$), 관계형성역량($t=5.100, p<.001$) 등의 요인이 부모자녀간 긍정적 의사소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설명력은 61.6%로 조사되었다.

<표 1> 부모코칭역량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회귀분석 결과

독립	종속	긍정적 의사소통				부정적 의사소통			
		B	SE	β	t	B	SE	β	t
사회적역량		.106	.052	.112	2.032*	.031	.103	.025	.303
의사표현역량		.084	.047	.104	1.791	-.192	.092	-.180	-2.077*
의사존중역량		.240	.049	.275	4.934***	-.246	.096	-.212	-2.555**
자기성장역량		.134	.044	.163	3.048**	.008	.087	.007	.087
성장촉진역량		.003	.048	.003	.055	.136	.095	.124	1.442
관계형성역량		.216	.042	.269	5.100***	-.198	.084	-.186	-2.365*
R ²		.623				.163			
Adj. R ²		.616				.147			
F		88.593***				10.392***			

* $p<.05$, ** $p<.01$, *** $p<.001$

이러한 결과는 의사존중, 관계형성, 자기성장, 사회적 부모코칭역량이 강화될수록 부모자녀간 긍정적 의사소통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특히 의사존중과 관계형성 요인이 다른 변인에 비해 부모자녀간 긍정적 의사소통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코칭역량이 부모자녀 부정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코칭역량의 하위변인인 중에서 의사표현 역량($t=-2.077, p<.05$), 의사존중역량($t=-2.555, p<.05$),

관계형성역량($t=-2.365$, $p<.05$) 등의 요인이 부모자녀간 부정적 의사소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설명력은 14.7%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의사존중역량, 관계형성역량, 의사표현역량 등의 코칭역량이 높을수록 부모자녀간 부정적 의사소통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부모코칭역량이 부모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코칭역량과 부모유능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코칭역량의 하위변인인 중에서 의사표현 역량($t=2.563$, $p<.05$), 의사존중역량($t=2.306$, $p<.05$), 자기성장역량($t=3.143$, $p<.01$), 성장촉진역량($t=3.268$, $p<.01$) 등의 요인이 부모유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설명력은 52.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성장촉진 역량, 자기성장 역량, 의사표현역량, 의사존중역량요인 등의 코칭역량이 높을수록 부모유능감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코칭역량과 부모유능감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부모코칭역량과 부모유능감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 종속	유능감			
	B	S.E	β	t
사회적 역량	.066	.062	.066	1.070
의사표현역량	.142	.055	.167	2.563*
의사존중역량	.133	.058	.144	2.306*
자기성장역량	.163	.052	.188	3.143**
성장촉진역량	.185	.057	.211	3.268**
관계형성역량	.067	.050	.079	1.332
R^2	.529			
Adj. R^2	.520			
F	59.997***			

* $p<.05$, ** $p<.01$, ***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4~7세 사이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코칭역량이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부모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먼저, 부모코칭역량이 부모자녀 긍정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부모코칭역량 요인은 부모자녀 긍정적 의사소통을 61.6% 정도 설명하였고 회귀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코칭역량의 하위변인 중에서 사회적역량, 의사존중역량, 자기성장역량, 관계형성역량 등의 요인이 부모자녀 긍정적 의사소통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코칭역량요인 중 관계역량, 의사소통 영역이 유아의 리더십에 영향을 준 홍은영(2015)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의사존중역량, 관계형성역량, 자기성장역량, 사회적역량 등의 코칭역량이 높을수록 부모 자녀 긍정적 의사소통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부모의 의사존중역량, 관계형성역량, 자기성장역량, 사회적역량이 부모 자녀 긍정적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실행역량, 의사소통역량, 의식역량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이정은(2013) 연구와 부분 일치한다. 또한, 부모코칭역량이 부모 자녀 부정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부모코칭역량 요인은 부모 자녀 부정적 의사소통을 14.7% 정도 설명하였고 회귀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코칭역량의 하위변인 중에서 의사표현역량, 의사존중역량, 관계형성역량 등의 요인이 부모자녀 부정적 의사소통에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존중역량, 관계형성역량, 의사표현역량 요인 순으로 부모자녀 부정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적 방향으로 큰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의사존중역량, 관계형성역량, 의사표현역량 등의 코칭역량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부정적 의사소통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지연(2019)의 어머니의 코칭 역량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본 연구를 뒷받침함을 알 수 있다. 부모님과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는 오은지(2015)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가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의사소통할 경우 유아기 자녀의 성격 발달의 기초가 되어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둘째, 부모코칭역량과 부모유능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 코칭역량 요인은 부모유능감을 52.0% 정도 설명하였고 회귀 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유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신체, 인지, 사회 및 정서발달을 돕는 양육행동이 나타나고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자원을 격려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으나 부모유능감이 낮을수록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성장촉진 역량, 자기성장 역량, 의사표현역량, 의사존중역량요인 등의 코칭역량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유능감을 갖게 되므로 부모-자녀 긍정적 의사소통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부모의 성장촉진 역량, 자기성장 역량, 의사표현역량, 의사존중역량이 부모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요인임을 알 수 있다. 관계역량, 의사소통역량, 의식역량이 높을수록 부모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김민숙(2014)의 선행연구와 하위요인이 달라 순서는 비교하기 어려우나 맥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코칭역량을 독립변수로 유아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한 결과, 관계역량, 의사소통 영역이 유아의 리더십에 영향을 준 홍은영(2015)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부모의 코칭역량에 따라 유아기자녀와의 관계가 성장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을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부모코칭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제한점을 가지고 후속 관련 연구를 위한 한계점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국한된 지역의 유아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전국적으로 고르게 대상을 선정하여 연구한다면 더욱 보편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학력과 코칭 받은 횟수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부모코칭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좋은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측정하였는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는 연구였으면 부모자녀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더욱 자세히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만 보았으므로 자녀의 입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 자녀 간의 함께하는 연구가 되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민숙(2014). 부모의 코칭역량 및 부모역할지능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1990). 부부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 비행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자(2004). 부모역할지능이 유아의 자아개념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자(2013). 행복한 부모코칭 교육자료. 서울: 한국부모코칭센터.
- 김지현(2017). 학교 조직의 의사소통 수준이 학교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한준아·조윤주(2015). 아버지의 부모로서의 유능감, 역할만족도,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유아의 정서조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4(4), 463-476.
- 도미향·김근주·이경주(2019). 영유아기 부모코칭역량 척도 개발 연구. 코칭연구, 12(2), 61-80.
- 도미향·이소희(2008). 해피온 코칭. 서울: 한국부모코칭센터.
- 민혜영(2019).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유아의 자율성이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원애(2012). 유아의 독서능력 관련 변인들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 부모코칭역량, 유아의 다중지능 및 결정지능을 중심으로. 충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성숙(2015). 동화책을 활용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이 유아의 읽기 흥미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은지(201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란(2013). 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유아의 자기주도 학습력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2016). 부모코칭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을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은(201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코칭역량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지연(2019). 어머니의 코칭역량이 유아기 자녀의 창의적 인성과 어머니-자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사설교육기관 공동육아센터 어머니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혜경(2008).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은선(2017). 학업정서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를 매개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현희(2019). 부모코칭역량이 유아 자기주도학습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은영(2015). 부모의 코칭역량이 유아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rnes, H., & Olson, D. 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P.(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Abstract

The Effect of Parent Coaching Capacity on the Communication and Parental Competency of Parents and children

Woo Dongok* · Kim Eungj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arent coaching competence o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parental capacity. The survey was conducted on 328 parents with 4-7 year old children that attend daycare centers in Chungnam, Gyeongnam, Seoul, and Gyeonggi provinces.

As a result, the higher the coaching competence of parents' parental capacity, relationship formation capacity, self-growth capacity, and social competency, positive communication was found to increase.

In addition, the effect of parent coaching capacity on parent-child negative communication was explained by 14.7% of parent-child negative communication and regression model was significa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higher the coaching competence of the parents' pseudo-respect, relationship-forming and pseudo-expression, the lower the negative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hird, the results of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coaching competency and parental capacity indicate that parental growth promotion capacity, self-growth capacity, expressional capacity, and pseudo-respective capacity have a positive effect on parental capacity.

Key Words : Parent Coaching Competency, Communication, Parental Capacity

* Director of the Sam Center

** Professor,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Coaching, Namseoul University